

사회과학대학 소식지를 개편하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회과학대학 소식지(newsletter)를 온라인으로 개편하면서 더 많은 분들께 사회과학대학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과학대학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회과학대학은 1948년 문리학부 사회학과와 정치학전공으로 출발하여 문리과대학, 법정대학 시기를 거쳐 1982년 현재의 사회과학대학 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회과학대학은 탁월한 연구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토대로 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가치와 학문 단위별 전문지식을 균형 있게 갖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의 「2024 THE 세계 대학평가」에서 국내 종합대학의 사회과학 학문 단위 중 전체 4위를 차지하는 탁월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및 교육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과학대학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트리거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회관 개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관 개축은 미래 지향적인 연구·교육시스템에 최적화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여, 향후 장전 캠퍼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회과학대학 구성원들에게 개축은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변화와 성장, 도약의 기회일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사회과학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미래 동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에 개편한 온라인 소식지에는 그동안 인쇄본으로 전하지 못했던 소식을 담았습니다. 개축 사회관의 조감도와 영상,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사회과학대학 7개 학과의 홍보 영상, 온라인 명예의 전당 등을 이번 소식지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와 함께 새롭게 개편한 홈페이지에도 사회과학대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차곡차곡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해드릴 다양한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소식지가 '쌍방향 소통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소식과 추억, 지혜와 조언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좋은 계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의 여유 즐기시기 바라며,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0월

사회과학대학 학장 노지현